

영국 국민방문 동포간담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기분이 각별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국내에 계신 국민들도 다 똑같은 국민인데 나와서 만나면 느낌이 특별하고 어쩐지 가슴이 찡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긴장하고 감동하는 만큼 교민들도 감동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베트남을 다니면서 우리 한국의 상업광고를 보면서 가슴 찡함을 느꼈습니다. 멀리 남의 나라에 우리 광고판이 저렇게 버티고 붙어있는 것만 봐도 어쩐지 한국의 힘이 느껴지는 것 같고 해서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태극기가 잔뜩 걸려 있습니다. 광고판보다 훨씬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오면서 태극기 보고 뿌듯한 뭔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조선옷(한복) 입기가 힘든데도 저를 본다고 차려입고 오신 정성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어젯밤 11시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신우승, 오극동, 유창근 회장님이 다 마중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영국에 국민방문 하러 한 번 오는 것이 여러 나라 국가원수들에게 꿈이라고 합니다. 저는 격식을 잘 모르고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 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민방문 하자 길래 격식과 절차가 까다롭고 골치 아픈 걸

왜 하자느냐고 했더니 외무장관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보더군요.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리 애를 써서 맞춰놓은 건데 임기 중에는 기회를 못 얻고 우리가 이번에 기회를 만들었는데, 대통령 개인뿐 아니고 영국 국민방문은 세계 속에서 국가의 위신과 위치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기회인데, 그걸 안 간다니 말이 되느냐고 해서 암말도 못하고, (그럼) 갑시다 하고 왔습니다. 좀 있으면 공식 환영행사 할 텐데 여러분도 지켜보기도 하고 영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영국 국민방문이 이렇게 근사하구나 생각하겠지만 한국도 저렇게 많이 컸나 보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긴장하고 감동하는 만큼 교민들도 감동하리라 생각합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한국국민들이 그동안 정말 애쓴 결과입니다. 물론 이곳 영국에 있는 여러분들도 한국인으로서 이곳에 살면서 한국의 이미지, 한국국민들의 역량을 잘 보여주고, 영국사회에 한국과 한국민들의 이미지를 잘 심어준 결과가 여기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국이 지난 40년 동안에 100배나 경제를 성장시켜왔고 게다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세계 각국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이번 초청에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식민지에서 출발한 나라 중에서는 한국만큼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보도를 보면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줄 건지 말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걱정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정치도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45년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3년 지나 정부를 수립하고 독립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온갖 어려움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분들이 정치에 불만을 갖고 있겠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환경에서 출발한 나라치고 한국만큼 민주

주의 한다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경솔하게 말해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 머릿속에 떠올려보려 하면 없습니다. 한국보다 잘하는 나라는 다 19, 20세기 초에 이미 국가의 기틀을 탄탄히 하고 남의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식민지에서 출발한 나라 중에서는 한국만큼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의 지도자들에 대해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평가해 왔습니다.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역량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욕이 강하고, 한다고 하면 꼭 성취하는 신념이 있고, 역량이 아주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도 그 시기에 한몫씩은 해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역량 발휘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가 최근에 와서 무척 자랑스럽고 저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해외에 살면서 현저하게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국내에 있을 때는 느끼기 어려웠을 겁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경제를 많이 걱정할 것입니다. 한국이 잘돼야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사람들이 영국에 많이 와서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것입니다. 또 한국경제가 잘 돼야 상호관계 속에서 일자리도 생길 수 있고 경제적 성공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다 접고도 한국이 무조건 잘 안 된다 하면 걱정이 덜커 되고, 잘된다 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걱정될 텐데, 감히 약속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잘 해낼 것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한몫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마케팅 하는, 기업 활동하는 분들의 역량이 각별히 뛰어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경제성장 갖고 얘기하는데 '올해 성장이 5% 된다, 안된다' '내년엔 4%도 안될 거다' 등 비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4% 성장이라고 하면 그것이 아주 파멸적인 것인가. 희망이 없는 것인가. 다른 여러 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 보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집니다. 상품판매를 통해 느껴지는, 그리고 현장에서 상품을 직접 보면 매력이 있습니다. 뭔가 이 상품이면 시장에서 대우 받겠다는 믿음을 줍니다. 현지에서 마케팅 하는, 기업 활동하는 분들의 역량이 각별히 뛰어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환경이 별로 안 좋은데도 잘 활동하고 있고, 인도에서 보면 현지공장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전국적으로 전체 판매조직을 구축해놓고 있는 현지기업의 주재원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가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중소기업에 가봤는데 아주 참 자랑스럽게 잘하고 있더군요. 기업 해외활동 보더라도 우리경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도 아주 활기참니다. 정부도 거기에 맞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혁신 노력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직업훈련과 연수에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금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책 중에 돈 내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정부가 세금 걷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마구 나눠주는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하고 지레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은 흔히 말하는 좌파라고 하는 사회

민주주의 또는 어느 정부도 그렇게 안 합니다. 복지정책도 착실히 하지만 일을 통해 스스로 소득을 갖는 기회, 일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 또 더 생산성이 높은 일을 하도록 능력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금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한국정부의 정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경제 괜찮을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큰 방향을 잡은 게 세계 지도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명망이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좋은 것도 남기고 나쁜 것도 남겨줍니다. 다 말할 수는 없고, 제 전임만 말씀드리면 한국의 행정이나 정치가 가져야 할 기본 틀, 인권이나 사회복지, 역사 문제, 적어도 기본적인 틀은 마련해서 자리를 잡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두면 흐지부지되겠지만 제가 착실히 내용을 채워나가면 국가의 틀이 반듯하게 세워지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지 이런 틀을 잡아줬습니다. 외교 하러 밖에 나가면 내가 주목과 대접을 받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그만큼 수준이고 국민들이 세계 도처에서 역량을 발휘해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갖고 있었던 존경이 있습니다. 인권지도자, 민주주의 정치지도자로서, 일관성을 가져왔던 지도자의 명성이 있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큰 방향을 잡은 게 세계 지도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명망이 있습니다. 저는 덕분에 다니며 대접을 잘 받습니다.

소비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도 무리수를 쓰지 않겠다는 게 제 결심입니다

나도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토대는 쌓였으니 실수가 없도록 하자. 외환위기 같은 실수는 없도록 하자. 그러려면 제 생각은, 5년 전부터 실수 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씨앗이 5년 전부터 싹트고 있던 것이 94년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위험이 닥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소비가 어렵습니다. 소비가 늘지 않아 어려운데, 무리하게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했던 것이 현재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원인입니다. 지금부터 소비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도 무리수를 쓰지 않겠다는 게 제 결심입니다. 부동산이나 사교육비, 이런 데 시민들의 지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서 전체적으로 임금과 물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한 토대 위에서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이 강화되도록 하려 합니다. 제 임기 동안에도 내 욕심으론 회복하는, 분명한 회복 기조를 바로잡아서 국민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힘차게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 임기 동안에 발생한 원인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경제부담이 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 임기 동안에 발생한 원인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경제부담이 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경제가 어려워서 원성이 빗발치더라도 원칙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둑에도 정석이 있듯이 경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기술 혁신, 시장개혁, 공정한 시장으로 뒷받침하는 사회·문화개혁 이런 걸 튼튼히 하고 공무원들, 지금 세계 40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20위권으로 효율성이 평가받도록 끌어올려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영국에 있으면서 교육, 경제, 국가운영에 대해 좋은 제도가 있으면 편지도 보내주기 바랍니다. 잘못된다 싶으면 지적도 해주십시오.

북핵문제 - 대화로 문제를 풀어내겠습니다.

북핵문제를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점에 관해 말씀 드려야 하는데 짧

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내겠습니다. 미국도 생각 있고, 북한도 생각 있고,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도 생각이 있습니다. 다들 있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풀어낼 것이고, 그게 단지 북핵문제를 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풀기 위해 회담 테이블에 앉았던 6개 국가가 앞으로 동북아 상호 간에 협력하고 서로 공동의 번영을 꾀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확실히 다지고, 번영을 추진하는 논의의 틀이 되도록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겠지만 한국 국민들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누구든 강행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역량이 그만한 걸 담보합니다. 지도자가 영똥하게 국민 역량이나 뜻을 무시하고 가지 않는 이상 국제적으로 한국이 그만한 평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량과 수준에 맞는 발언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북한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도 개혁, 개방해야 할 것이고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정부,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 상황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가 한반도의 긴장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들어서면 동북아가 가진 자원의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한반도가 서울로 치면 명동 땅처럼 자리잡고 있지 않느냐. 또 한국 국민들이 그동안 외국 어느 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박해와 고통을 겪었지만 넉넉히 용서하고 포용해나갈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한 민족성과 인간성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잘 다듬어 가면 국제사회에 있어서 미래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내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갈 방향을 올바르게 통합해 제시하는 도덕적 지도력이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위상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떳떳하게 살도록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